

독어음의 음성학적 고찰 (2)

- 현대독어의 복모음에 관하여 -

윤 중 선(동국대 독문과)

<목 차>

1. 머리말
2. 신고지독어 복모음의 생성과 그 의미
3. 조음음성적인 분석
4. 표기상의 혼잡성
5. 결론

1. 머리말

필자는 <말소리> 제5호에서 독어음에 관한 조음상의 특이성과 그 연구 및 교육과 관련된 개괄적인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의 분석과 해결방안, 그리고 음성연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본고는 위의 줄고에 대한 후속으로 신고지독어의 복모음에 관하여 근원적으로 조음음성상의 분석을 하고, 그 표기상의 혼잡성을 비판하고자 한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일반 사서류나 발음사전의 표기방식은 저자나 저자가 속하는 학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문가에게도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어를 외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음의 표기가 이미 난해할 뿐 아니라 고유 명사인 경우 우리말로의 표기가 불가피하게 되면 표기하는 사람이나 이를 읽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기된 어음을 본래의 어휘로 환원해야 되는 상황도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 때에는 음소에 의한 표기보다 어음에 의한 표기가 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2. 신고지독어 복모음의 생성과 그 의미

신고지독어 복모음 ei, au, eu는 그 생성과정이 독어발달사에서 시대구분이나 어음변화의 발생지역 판별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한다. 대체로 이 현상은 동시 다발적이 아니라 어휘에 따라 시기와 구역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원전분석이나 방언의 분포 분석에 기여하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요성은 다른 앞선 시대에 비해 결정적인 원전이 확보되어 있고, 학자들간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되고 있어서 더욱 그 실용성을 돋보이게 한다.

중고지독어의 장모음 \bar{i} , \bar{u} , $iu[y:]$ 가 신고지독어에 이르러 각각 ei, au, eu로 복모음화(Die nhd. Diphthongierung)된 것은 시기로 보아서는 12세기 초에서 16세기에 이르는 기간, 다시 말해서 신고지독어가 시작되는 기간까지 해당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어간모음에 위의 복모음이 나타나면 그 독어는 신고지독어라 할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독어가 슬라브계나 로만계 언어와 경계를 이루는 남부 오스타리아에서 시작하여, 한 줄기는 북쪽을 향하여 Oder-Neiße강의 합류지점으로 폭을 넓히고, 다른 한 줄기는 서북쪽으로 Bayern지방에서 확대되었다가 Franken과 Schwaben지방을 거쳐 서쪽 중부독일의 Mosel강 유역에서 다시 폭을 줄인다.¹⁾ 다시 말하면 고고지독어에서의 제2차 자음추이가 남서방향에서 북동방향으로 전파된 것과 비교하면 중고지독어에서 일어난 복모음화현상은 남동방향에서 북서방향으로 대칭을 이루었다는 관찰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밖에 신고지독어에서 ai, ey, äu 등의 철자가 눈에 띄는 것은 그것이 복모음화 이전에 있었던 전승된 복모음과 복모음화 이후의 모음 사이에 의미상 대립되는 동음이의어가 발생될 때 전래의 모음을 그대로 잔유시킴으로써 양자 간의 판별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다. (Seite-Saite)²⁾

3. 조음음성적인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신고지독어의 새로운 복모음은 바로 앞선 시대의

1) dtv(3025), Atlas zur deutschen Sprache 1978, S.146-147.

2) Kiele, Richard von(1969). Historische Laut- und Formenlehre des Deutschen, Niemeyer, S.35.

장모음이 변한 것이다. 장모음이 어느 한 조음점에서 다른 점을 향하여 활음상태에 돌입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모음도표상의 시각적인 고저관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시각적으로는 고음이 저음으로 향하는 경우와 저음이 고음으로 향하는 등의 경우가 있지만, 모음의 개폐관계로 보는 시각에서는 고음이 저음으로 향할 때 방향은 하강이지만 생리적으로는 구강공간이 넓어져 울림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원리에서 시각적 상승·하강과 울림도의 강약 사이에는 역비관계가 성립된다. 따라서 시각적인 하강상태의 모음이 상승모음이 되고 그 반대의 모음이 하강모음이 된다.

(예1) 중고지독어의 장모음은 2개 단모음의 중첩과 동일시했으므로
 mīn hūs > miin huus가 되고,

중첩된 모음의 첫째 요소를 각각 상승시키면
 miin huus > main haus로 하강모음이 된다.

(예2) 초기 고고지독어의 blōt는

blōt > bloot가 되고,

중첩된 모음의 첫째 요소를 하강시키면
 bloot > bluot로 상승모음이 되며,

중고지독어의 복모음 uo는 신고지독어에서 단모음화되므로 blut로 된다.³⁾

이와같은 활음상태를 조음음성적으로 일반화하면 장모음의 복모음화는, 장모음을 이루는 2개의 단일요소 중 첫째 요소가 울림도에서 상승하거나 하강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에서 보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독어나 영어의 복모음은 하강모음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게 된다.

3) Schubiger, Maria(1970). Einführung in die Phonetik, Sammlung Göschen, S. 54-55.

4. 표기상의 혼잡성

복모음에만 국한하여 관찰하면 그 표기방식은 크게 두 계열로 나뉜다. 그 하나는 Wilhelm Viëtor(Die Aussprache des Schriftdeutschen 1885)를 정점으로 하는 Duden총서의 broad transcription 이고, 다른 하나는 Theodor Siebs (Deutsche Bühnenaussprache 1898)가 대칭적인 존재로 narrow transcription을 고집하고 있다. 이 두 계열의 지지자들은 금세기 후반기에 이르기까지 여러 음성학 저서나 발음사전을 간행했다.

여기서 흥미를 끄는 것은 위의 두 계열 학자들이 각각 새로운 발음사전을 간행하면서도 복모음에 관한 한 나름대로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개정판들의 간행동기가 전통적인 무대발음을 지양하고, 현실감 있고 일반화된, 상황에 따라 대중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발음에 충실하게 표기했다는 데에 명분을 걸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생성과정에서 이미 그 음가가 유동성을 지닌 복모음의 표기에서 전자는 음소적(phonemisch)이고 후자는 어음적(phonisch)인 관계는 무엇인가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가 공히 외국인을 위한 언어자료를 제작하면서도 전자가 후자보다는 더 일반성이 있어 보인다.

전자인 Duden: Aussprachewörterbuch는 독일어의 공인 규범서라 할 수 있는 총서의 편집진에 의한 발음사전으로 1962년에 초판이 나왔다. 2년 후인 1964년에 동독에서 집단 편집진에 의한 발음사전 Wörterbuch der deutschen Aussprache, Leipzig가 현실음을 채택한 데에 자극을 받았는지 1974년의 제2판에서는 부분적으로 큰 혁신을 일으켰다. Vater에서 발음 er[ər]를 [ɛ̃]로, mir에서 장모음 다음의 [r]를 [ẽ]로 각각 현실화하고, 말음절 [-əl], [-əm], [-an]에서 일정한 속도를 전제로 모음 [ə]를 탈락시키고 [l], [m], [n]이 어간의 끝자음과 결합되는 모음의 역할을 맡아 성절음(silbisch)이 되게 했다. 어말음에 관하여 이토록 현실음을 대담하게 도입했으면서도 Duden 제2판은 표음상의 변혁 가능성이 짙은 복모음은 두 표음문자를 반달형으로 아랫 쪽에서 묶어주었을 뿐 broad transcription [ai, au, oy]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를 대표하는 후자 Siebs사전은 1969년에 책명을 Deutsche Aussprache라고 간소화하여 개정판을 내면서도 종래의 narrow

transcription [ae, ao, ɔ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5. 결론

여기서는 위에서 개괄한 두 집단의 대표적 용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분석한 후, 바람직한 표기방식을 찾아 봄으로써 결론으로 삼고자 한다.

(a) Duden 계열

Duden(2판)	aj	au	ɔy
Wängler	aɪ	au	ɔʏ
Shogakukan	aɪ	au	ɔʏ
Kohler	aɪ	au	oi

(b) Siebs 계열

Siebs	ae	ao	ɔø
Martens	ae	ao	ɔø
Dieth	ae	ao	ɔø
WDA(동독) ⁴⁾	ae̥	ao̥	ɔø̥

위의 양 계열을 일건하면 대체로 공통적인 의도가 엿보임을 알 수 있다. 즉, 복모음이 본시 두 독립한 음소의 결합체가 아님을 나타내고 싶은 것이다. Kohler를 제외한 나머지 방법은, 복모음이 한 어음에서 다른 어음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그 첫 요소와 마지막 요소만을 청취할 수 있는 활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위의 Kohler와 Duden을 제외하고 한 단계 더 분석해 들어가면, 강세는 첫 요소에 있을 뿐 아니라 허가 갖고 있는 생리적인 본성을 고려하여, 마지막 요소는 해당음소의 조음점을 향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중앙화되어 제 2 기본모음의 조음점으로 치져 버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동독의 표기법은 뉘음표까지 붙였으므로 과잉표기라고 보아야 하고 대중적인 해독을 더욱 어렵게 한다.

4) Keller, R.E.(1986). Die deutsche Sprache und ihre historische Entwicklung, Hamburg, S.536.

대중성이 없는 것은 Siebs 계열의 공통점인데, 반드시 일정한 속도가 전제된다는 약점도 있으므로 외국인 중에서도 특히 동양인에게에는 불리한 표기법이다. 마지막 요소를 실제음에 접근시킨다는 명분이 있지만, 복모음 그 자체로서는 좋아 보여도 활용단계에서 변이음의 문제와 어음환경에 따르는 뉘앙스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의도하는 실제음에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적극성은 없어 보이면서 무리 없이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Duden(2판)과 Wängler가 택한 방법이다. Tokyo의 Shogakukan 출판사는 Wängler를 그대로 채택했다. Wängler는 필사나 기계화 작업상의 능률에서 유리하면서도 마지막 요소가 처져야 하는 점에 유의하여 조음점이 다소 중앙화되는 단모음을 택하였기 때문에 실용과 이론이 견비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필자는 과거에 한 번 인용했던 대표적 음성학 저서에서 본 논제와 직접 관계되는 부분을 인용하고 끝을 맺는다.

- (1) <Die phonetische Umschrift steht somit zwischen der praktischen Orthographie und der Pho-nographie und berührt sich in ihrer weiten Form mit der Orthographie, in der engen mit der Phonographie. Die weite Transkription verzichtet auf Einzelheiten, dh. sie begnügt sich mit der Weidergabe der Phoneme; die enge Transkription sucht gleichsam wie die Grammophonplatte, alle Lautnuancen zu erfassen. Die weite (phonemische) Umschrift ist praktisch und eignet sich besonders für den Fremdsprachunterricht; die enge (phonische) ist impressionistisch und wissenschaftlich.>⁵⁾

(음성문자는 실제의 정서법과 표음법 사이에 끼어 있어 넓은 형태로서는 정서법과, 좁은 형태로서는 표음법과 상통하는 것이다. 넓은 표기법은 구체성을 포기하고 음소를 나타내고, 좁은 표기법은 음반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모든 어음의 뉘앙스를 포착하려고 한다. 넓은 표기법은 실용적이어서 특히 외국어 교습에

5) Dieth Eugen(1968). Vademekum der Phonetik, Bern, S.44.

적합하며 좁은 것은 인상주의적이고 학술적이다.)

- (2) <Each letter of a phonetic notation therefore really represents a small family of sounds. The values to be attached to the letters vary to some extent, and depend upon (i) the phonetic context, and (ii) the language or dialect this is being written. We have to give this elasticity to the letters of phonetic transcription, since strict adherence to the principle 'one sound one symbol' would involve the introduction of a very large number of symbols and marks. This would render phonetic transcriptions cumbrous and difficult to read.>

(음성표기의 낱개의 문자는 실제로는 작은 단위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자에 부여되는 음가는 다소 변화하게 되는데 이는 어음의 전후관계와 쓰이는 언어나 방언에 좌우되는 것이다. 음성표기 문자에는 이와 같은 융통성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매소리마다 한 부호>식을 고집하면 수많은 음표와 부호가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음성표기는 귀찮게 되고 읽기도 어려워진다.)

<For most linguistic purposes broad transcriptions are the most practical, since they combine accuracy with the greatest measure of simplicity. In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a foreign language, for instance, a broad transcription is generally to be recommended.>⁶⁾

(대체로 언어연구를 위하여는 넓은 표기법이 가장 실용성이 있는데 이는 이 법이 극히 간편하면서도 정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국어를 교수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넓은 표기법을 권장해야 한다.)

6) Jones, Daniel(1967).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S.28-29.

(3) <Eine Lautschrift muß leicht lernbar, schreibbar, setzbar, ferner, und besonders im zusammenhängenden Text, typographisch schön und gut lesbar sein.

Sie muß auf möglichst viele Sprachen anwendbar sein.>⁷⁾

(음표문자란 쉽게 배우고 쓰고 기입할 수 있어야 하며, 또 관련 구문에서 인쇄가 예쁘고 읽기 좋아야 한다. 그리고 되도록 많은 언어에 활용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Dieth Eugen(1968). *Vademekum der Phonetik*, Bern, S.44.
 dtv(3025)(1978). *Atlas zur deutschen Sprache*, S.146-147.
 Duden, Bd.6(1974). *Das Aussprachewörterbuch*, Mannheim, S.30-32.
 Jones, Daniel(1967). *The pronunciation of English*, Cambridge University Press, S.28-29.
 Keller, R.E.(1986). *Die deutsche Sprache und ihre historische Entwicklung*, Hamburg, S.536.
 Kiele, Richard von(1969). *Historische Laut- und Formenlehre des Deutschen*, Niemeyer, S.35.
 Krech, Hans(Hrsg. 1969). *Wörterbuch der deutschen Aussprache*, Max Heuber Verlag, München, S. 41-42.
 Schubiger, Maria(1970). *Einführung in die Phonetik*, Sammlung Götschen, S. 54-55.
 Siebs, Th.(1960). *Deutsche Aussprache*, hrsg. v. Helmut de Boor, Hugo Moser und Christian Winkler, 19. umgearb. Aufl., Berlin, S. 80-82.
 Wängler, H.-H.(1974). *Grundriss einer Phonetik des Deutschen*, 3. Durchges. Aufl., Marburg, S.114-117.

7) Dieth, Eugen(1968). 같은 책 S.45.

ABSTRACT

A Phonetic Study of German (2)

Yun, Jong-sun

Those who are interested in the German diphthongs will find that they are classified into three kinds of forms in accordance with their gliding directions: closing, centring and rising. The German [aɪ], for example, which derives its origin from [i:] of the middle high German, is regarded as a distinctive feature that distinguishes the new high German from the middle high German.

The diphthong [aɪ] is called falling one, because the sonority of the sound undergoes a diminution as the articulation proceeds. The end part of the diphthong [aɪ] is less sonorous than the beginning part. In most of the German diphthongs the diminution of prominence is caused by the fact that the end part is inherently less sonorous than the beginning. This applies to the other closing and centring diphthongs.

This way of diminution of sonority exerts influence on methods of constructing systems of phonetic notation. The above mentioned less sonorous end part of diphthong [ɪ] shows that it differs from some analogous sound in another context. It is useful to demonstrate the occurrence of particular allophones by introducing special symbols to denote them (here: aɪ→ae). Forms of transcription embodying extra symbols are called narrow.

But since strict adherence to the principle 'one sound one symbol' would involve the introduction of a large number of symbols, this would render phonetic transcriptions cumbersome and difficult to read. A broad style of transcription provides 'one symbol for each phoneme' of the language that is transcribed. Phonemic transcriptions are simple and unambiguous to everyone who knows the principles governing the use of allophones in the

language transcribed.

Among those German ways of transcriptions of diphthongs (ai, au, ɔɪ; ae, ao, ɔø; ae, ao, ɔø) the phonemic (broad) transcription is generally to be recommended, for instance, in teaching the pronunciation of a foreign language, since it combines accuracy with the greatest measure of simplicity (Some passages and terms from Daniel Jones).